

한국사립대학총장세미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0월 22일(금) 인천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제5회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회식에 이어 '사학진흥법 관련 현황보고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이남식 총장(전주대)의 발표와 자유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특별 강연으로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의 역사와 교육 강의가 이어졌다.

이 세미나에서 사립대학 재정 지원에 관한 입법과 대학평의원의 자문기구 전환, 개방이사제의 자율적 운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 육성을 위한 건의문'을 100여 개 사립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모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선진국의 사립대학 정부 재정 지원율은 독일 100%, 프랑스·영국 90%, 일본 22% 등으로 정부지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 사립대학은 정부지원이 법적으로 전무하다"며 "교육재원을 등록금에 의존하다 보니 학생

부담을 가중하고 열악한 재정상태는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교수·직원·학생·졸업생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반복 심의해 대학 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평의원이 자문기구로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과반수가 평의회 추천으로 구성되는 개방이사추천위가 전체 이사 중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학교 사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대학에 따라 자율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